기사 제목: "애플 마이크로 LED, 아이폰·비전프로·애플카에 확대 적용"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01675?sid=105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보고서애플이 직접 개발 중인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가 애플워치 뿐 아니라 향후 아이폰, 비전 프로 헤드셋, 애플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맥루머스, BGR 등 외신들은 10일(현지시간) 대만 트렌드포스 보고서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사진=씨넷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제일 먼저 애플워치 울트라에 마이크로LED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이 아닌 2026년이 될 예정이다. 애플워치에 적용될 마이크로LED 화면 크기는 지금보다 10% 증가한 2.12인치로 예상됐다.트렌드포스는 애플 맞춤형 마이크로LED가 아이폰, 헤드셋,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올해 마이크로LED 시장 규모가 2천700만 달러(약 355억원), 2027년에는 5억 8천만 달러(약 7천644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애플이 2026년 차기 비전 프로나 증강현실(AR) 글래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는 마이크로 LED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BGR은 평했다. 하지만, 애플이 언제 아이폰의 OLED 패널을 마이크로LED로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6년 애플워치 울트라에 제일 먼저 마이크로LED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씨넷)올해 초 블룸버그 통신도 애플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애플워치 울트라에 먼저 적용한 후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애플이 최종적으로 모든 제품에 마이크로LED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지만, 기술 복잡성으로 인해 맥 제품에 채택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디지타임스, 닛케이아시아, 디인포메이션 등 여러 외신들도 애플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제품에 애플 맞춤형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애플은 그 동안 마이크로LED 기술을 개발하는 데 6년 이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7년 코드명 ‘T159’이라 불리는 마이크로LED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해당 기술을 아이폰X에 먼저 채택하고자 했으나, 생산 어려움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전해졌다.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단위의 초소형 LED를 기판 위에 이어 붙이는 디스플레이로,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달리 개별 소자가 빛과 색을 동시에 낼 수 있어 더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기사 제목: 삼성 태블릿PC 2분기 점유율 20%…1위 애플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3560?sid=105

1위 애플 점유율 37% ‘삼성·레노버·화웨이’ 합쳐도 안 돼삼성 20.6% 점유율로 2위, 애플과 격차 16.4%포인트전체 출하량 감소에 ‘레노버·화웨이’ 등 중화권 업체 부진삼성 탭S9 앞세워 3분기 공략, 내년부터 태블릿 시장 살아날 듯  
  
  
  
그래픽=손민균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세계 태블릿PC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지켰다. 다만 지난 1분기 대비 점유율이 3%포인트(P) 줄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태블릿PC 시장점유율 1위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도 전년 동기(13.5%)와 비교해 확 늘었다. 올해 2분기 애플과 삼성전자의 태블릿 점유율 격차는 16.4%포인트다.10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태블릿PC 출하량은 2830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4030만대와 비교해 1년 새 29.9% 줄었다. 지난 1분기 3070만대와 비교해서도 3개월 만에 7.8% 감소했다. IDC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체별 높은 재고 수준이 태블릿PC 출하량에 역풍으로 작용했다”라고 했다.태블릿PC 시장 1위 애플의 올해 2분기 출하량은 1050만대다. 애플은 점유율 37%를 기록했다. 이는 2위 삼성전자와 3위 레노버, 4위 화웨이 점유율을 합친 수치를 넘어선 점유율이다.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점유율 20.6%를 보였다. 출하량은 580만대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난해 2분기 점유율은 각각 31.2%, 17.7%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점유율 20%를 넘어섰지만 애플과의 격차는 지난해 2분기 13.5%포인트에서 올해 2분기 16.4%포인트로 늘어났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화권 업체 부진 계속, 삼성 탭S9 앞세워 3분기 공략 레노버, 샤오미 등 중화권 업체들은 올해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레노버의 올해 2분기 점유율은 7.6%로 출하량은 210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레노버 출하량이 350만대인 걸 감안할 때 1년 새 출하량이 38.8% 급감했다. 점유율도 1년 새 0.9%포인트 줄었다. 4위 화웨이의 올해 2분기 출하량은 1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다.5위 샤오미는 전체 태블릿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나홀로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샤오미의 출하량은 1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늘었다. 점유율도 지난해 2분기 1.8%에서 3.6%로 뛰었다. 그러나 출하량이 100만대 이하로 적었고 판매 지역도 중국 내수 시장이라 의미 있는 성장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IDC는 “샤오미는 큰 폭의 할인 행사와 기존 제품 교체 프로모션 등으로 성장 폭이 컸다”라며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정된 성장세였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갤럭시탭S9를 체험하는 모습. /뉴스1 올해 3분기 태블릿 시장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 신제품 갤럭시탭S9 시리즈를 출시한다. 탭S9 시리즈는 탭S9, 탭S9플러스, 탭S9울트라 등 3개 모델로 다이나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X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8 2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을 탑재했다. 또 삼성 태블릿 최초로 1m 수심에서 30분간 방수가 가능한 IP68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한다. 애플 OLED 적용 아이패드로 반격, 태블릿 시장 내년부터 살아날 듯 애플의 반격도 예상된다. 애플은 올해 10월 OLED를 적용한 아이패드 11세대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또 2021년 이후 2년 만에 아이패드 미니 7세대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지테시 우브라니 IDC 리서치 매니저는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 갤럭시탭이 고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레노버와 샤오미, 화웨이가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태블릿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했다.한편 세계 태블릿 시장은 올해 말까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블릿 전체 출하량은 전년 대비 15.2% 줄어든 3억8480만대가 예상된다. IDC는 내년부터 태블릿 수요가 살아나면서 2027년 4억2500만대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DC가 예상한 올해 태블릿 1대당 평균판매가격(ASP)은 700달러(약 92만2600원)다.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가 예상된다. IDC는 2010년(애플 아이패드 출시) 이후 처음으로 ASP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제목: 뉴욕증시, 예상치 밑돈 CPI에 강보합권 마감…디즈니 4.85↑·애플 0.12%↓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2394?sid=101

다우존스 0.15%·S&P500 0.03%·나스닥 0.12% 상승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0일(현지시각) 모두 소폭 상승마감했다.뉴욕증권거래소 직원들이 웃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다. /더팩트 DB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0일(현지시각) 소폭 상승 마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진 덕분이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52.70포인트) 오른 3만5176.15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3%(1.12포인트) 오른 4468.8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12%(15.97포인트) 오른 1만3737.99에 거래를 마쳤다.S&P500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 6개 업종 관련주가 상승했다. 에너지는 0.08% 오르는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재량적 소비재 0.28% 금융 0.08%, 소재 0.09%, 통신서비스 0.42%, 기술 0.01%가 올랐다. 필수소비재 0.2%, 유틸리티 0.32%, 보건 0.04%, 부동산 0.31%, 산업 0.28% 등의 업종은 전날보다 내렸다.종목별로는 월트디즈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월트디즈니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85% 올랐다. 월트디즈니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조정 순이익을 발표했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 방안을 발표한 효과로 풀이된다. 월트디즈니는 오는 10월12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3달러 인상할 예정이다.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빅테크 대장주 애플과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는 각각 0.12%, 0.39% 내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0.22%, 아마존 0.52%, 구글모기업 알파벳 0.02%,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0.17%, 넷플릭스 0.25% 등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다.전기차주는 테슬라가 전 거래일 대비 1.3% 올랐다. 니콜라도 1.03% 올랐지만,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1.97%, 4.24%씩 하락했다.시장은 이날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방향을 주목했다.이날 발표된 미국 7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올랐다. 전월(3.0%상승) 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뒤집힐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날 CPI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3.3%)대비 낮은 수준이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7월보다 4.7% 올랐다. 이는 전월(4.8%상승)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다.애나 웡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Fed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한 흐름과 일치하는 흐름에 있다"면서 "Fed가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시장은 Fed가 다음 달 19~2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25~5.50%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CPI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확률을 분석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의 9월 금리동결 확률은 90.5%를 나타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데일리 총재는 10일(현지시각)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과 일치한다면서도 추후 금리 결정은 예측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CPI 발표 후 미국 금융시장 전문 매체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CPI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이는 좋은 소식이다"고 밝혔다.데일리 총재는 "이것은 우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일치한다"면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더 오래 동결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음 회의까지 나오는 지표가 많아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지난 7월 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금리 동결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을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10년물 수익률은 10bp(0.01%포인트) 오른 4.109%에 거래됐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4.8bp오른 4.85%를 기록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 제목: 애플 '앱 외부결제 링크' 적용시기 미뤄졌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8259?sid=105

美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유예"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 : 로이터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9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9일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을 하지 말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당분간 현행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소송은 인기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의 갈등에서 촉발됐다. 2020년 8월 에픽은 포트나이트 앱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도입했다. 애플과 구글 등이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다운받을 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회 조치였다. 이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에픽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타사의 앱 마켓 및 결제를 금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2021년 9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10개 쟁점 가운데 9개를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하며 “애플은 5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에픽의 손을 들어준 1개가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서비스 금지 정책이었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결제 이외에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지난 4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도 “에픽 측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 측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애플과 에픽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애플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이다.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이날 애플과 에픽 모두 대법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기사 제목: 애플 뛰어든 XR시장, '100배' 성장 전망…삼성은 언제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0355?sid=101

삼성, XR 생태계 준비…핵심부품 마이크로 OLED '이매진' 인수도메타 선도한 XR 시장, 애플 내년 '비전 프로' 출시로 본격화 전망높은 가격에 콘텐츠 부족 지적도…"삼성, '옴니아 교훈' 되새길 듯"  
  
  
  
애플이 9년 만에 공개한 XR(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연합뉴스애플이 내년 1분기 XR(혼합현실) 디바이스 '비전 프로'를 전 세계에 출시하면서 XR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언제, 어떤 제품으로 XR 시장에 뛰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게임 포털(Game Portal)'이라는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게임 전문 온라인 스토어 '삼성 게임 포털'을 오픈했다. '게임 포털' 상표는 XR 게임용 헤드셋과 컨트롤러 등의 상품 분류에 등록했다. 앞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갤럭시 서클 △갤럭시 인사이드 △갤럭시 인덱스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XR 생태계를 구축할 브랜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XR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도 나섰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미국의 마이크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업인 '이매진(eMagin)'을 2억 1800만 달러(약 2850억 원)에 인수했다. 마이크로 OLED는 '올레도스(OLEDoS‧OLED on Silicon)'로 불린다. 기존 OLED가 화면 기판으로 유리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마이크로 OLED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증착한다. 특히 XR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보다 눈과 가깝기 때문에 높은 화소 밀도가 몰입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우수한 화질이 장점인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해야 한다. 마이크로 OLED는 전체 원가의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 부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XR 기기가 대중화하면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매진 인수를 통해 XR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VR(가상현실)과 XR(확장현실)을 활용한 고전극 '크리스마스 캐롤'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삼성전자는 퀄컴‧구글과 차세대 XR 경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시장은 △퀄컴의 칩셋 △구글의 AR 글라스 경험과 OS(운영체계)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차세대 XR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지난 6월 공개한 XR 헤드셋 '비전 프로' 역시 공식 출시는 내년 1분기가 될 예정이다. 현재 메타가 오큘러스를 통해 XR 헤드셋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장의 성장 속도와 판도를 바꿀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XR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S)에 따르면, XR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 원에서 2028년 200조 원으로 100배 성장이 예상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았다. 비전 프로의 3499달러(약 46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다. 또 XR 디바이스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성장도 숙제로 꼽힌다. 애플 역시 당초 출시 첫해 판매 목표를 300~40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축소했고, 최근 40~50만 대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30만 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플이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아이폰 가격으로 낮추고 안경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때까지 더 저렴한 버전이 나온다고 해도 (소비자는) 맥이나 아이패드 등 기존의 기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시장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세대 XR 디바이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2009년 10월 옴니아를 출시했지만,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굴욕을 당한 기억이 있다"면서 "이후 '갤럭시S'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만큼, XR 디바이스는 처음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사 제목: [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디즈니·넷플릭스·애플·SK·삼성·엔비디아·DGB·국민·BNK·우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7117?sid=101

■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세한대 특임교수◇ OTT 요금 인상 '디즈니·넷플릭스·애플'국내에 넷플릭스보다 후발 주자로 등장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죠. 디즈니플러스 매달 결제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구독자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구독료를 인상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건지 오늘(11일) 첫 소식 디즈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디즈니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을 한다고요.- 디즈니+, 구독자 급감에 10월부터 또 가격 인상-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 11달러→14달러로- 블룸버그 "디즈니+ 가격 인상은 수익성 방어 차원"- 디즈니+ 가격, 경쟁업체 넷플릭스·맥스 대비 낮아- 디즈니, OTT 부문 구독자 수 이탈에 주가는 약세- 구독자수 확보 위해 내년부터 계정공유 금지도 추진- 고강도 구조조정 진행 중인 디즈니, 적자 폭 급감- 디즈니 2분기 매출 3.8% 증가…순손실도 전년 대비 줄어- '구원투수' 아이거의 비용 절감 전략 효과 나타나- OTT 손실 누적에…콘텐츠 제작 축소·인력 감축- 올해 7000명 감원 목표…콘텐츠 예산 55억달라 삭감- OTT 구독자 7.4% 이탈…인도 크로켓 중계권 상실 탓- 디즈니, 미디어 엔터 매출 감소…테마파크만 성장- 밥 아이거 CEO "구조조정 계속할 것…창조성 회복"- 팬데믹에 200달러 돌파한 디즈니, 주가 3년 전으로-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광고요금제 덕에 호실적- 지난 5월부터 100여개 국가서 '계정 공유' 금지- 초기 구독 취소 등 반발 컸지만 선순환 구조 마련- 연이은 콘텐츠 흥행에…넷플릭스, OTT '절대강자'- 디즈니, 애플에 넘어가나…계속 반복되는 '매각설'- 애플의 디즈니 인수설, 2019년 아이거 자서전서 시작-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애플과 디즈니 합병 가능성"- 2000년대 초반, 잡스 생전에도 디즈니 인수설 언급- 디즈니, 2006년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픽사 인수- 픽사 매각하며 밥 아이거에 '반등 기회' 줬던 잡스- 밥 아이거, 잡스 사망 직후 애플의 이사진으로 합류- 좌우진영 '싸움판' 된 디즈니월드…론 디샌티스와 대립- 플로리다주 '돈 세이 게이' 법 통과에 반대성명 발표- 디샌티스 주지사, 디즈니월드 '특별 자치권' 박탈- 디즈니, 소송으로 반격…"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주입법에 의견 표명했을 뿐인데 처벌받았다" 주장-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 론 디샌티스 주지사- 공화당 지지자들 80%, 성 정체성 교육 반대 입장◇ 최태원 반도체 승부수 'SK·삼성·엔비디아'다음은 반도체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인데요. 고성능, 고용량을 위해선 데이터 저장 공간을 빌딩처럼 높게 쌓는 게 중요한데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로 높게 쌓은 낸드 플래시 샘플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박사님, 반도체 기업들 다들 높게 쌓으려고 경쟁인데 우선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300단에 도달했다고요?- '낸드 후발주자' SK하이닉스…300단 고지 첫 점령- 8일 美 '플래시 메모리 서밋'서 321단 낸드 첫 공개- 업계 3위지만 대역전…기술 경쟁력 최선단에 우뚝- SK하이닉스의 321단, 이전 대비 생산성 59% 높여- 낸드, D램과 달리 전원 꺼져도 데이터 저장 가능- 전송 속도 빠르고 저장 용량까지 늘어 사용 확대- 2021년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한 뒤 업계 3위에 올라- 1분기 기준 낸드 점유율 1위 삼성전자·2위 키옥시아- '낸드 300단' 문 연 SK하이닉스…삼성은 내년 양산- 합병 앞둔 키옥시아·WD 등 경쟁사와 기술 초격차- AI 열풍에 고성능 메모리 개화…SK하이닉스 주목- SK하이닉스, HBM 시장서 기술력·공급능력 독보적- SK하이닉스, HBM 점유율 50% 육박…삼성 압도 수준- '초거대 AI' 시스템용 핵심 메모리 'HBM3' 독점- SK하이닉스, 삼성 제치고 차세대 메모리 분야 주도- 하이닉스-삼성 경쟁 속 차세대 HBM 판 키우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최신 AI 컴퓨터에 HBM3e 장착 발표- 최신 HBM 개발·생산 삼성·하이닉스 'AI 열풍' 수혜- 삼성 공장 '中 복제' 시도 前 상무 "조작된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중국에 설립 시도- 삼성전자 전 임원 사건…검찰 공소장 두고 '신경전'- 변호인, '부풀리기' 등 표현…檢 공사사실 자체 비판- 변호인 "기술 유출 피해회사 삼성전자로 특정 잘못"- '국가핵심기술' 판단 근거 다툼도…"핵심기술 아니다"- "하이닉스로 이직해 기여한 피고인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 "기술 유출 사건이지 설계도면 절도 사건 아니다"- 최태원 회장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는 것 아니다"- 지난달 외신기자 간담회서 엑스포 유치 당위성 강조- 10월 9일 파리서 엑스포 세미나·갈라 디너 예정◇ 메기 은행의 배신 'DGB·국민·BNK·우리'마지막으로 금융권 소식까지 살펴보시죠. 최근 지역은행에서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악재를 만났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 계좌를 개설한 게 적발돼 금감원이 긴급검사에 착수했는데요. 박사님,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불법 계좌를 개설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번엔 대구은행…고객 몰래 1000여 개 계좌개설 드러나- 은행장은 "혁신기업의 동반자"…현장에선 '문서위조'- 10년 전부터 각종 비리에 재발 방지 외쳤지만 공염불- 전직 은행장 비자금·채용 비리에 계좌 불법개설까지- 신뢰 생명인 금융 거래에서 고객 계좌 불법으로 개설- 문서 위조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1000여 계좌 개설- 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신규 인허가 제약 가능성- 시중은행 인가 앞두고 대구은행 측 "알면서도 쉬쉬"- '늑장 대응' 논란…6월 말 민원 접수 뒤 자체 감사- 경쟁 촉진 위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급제동- 대구은행 "정도경영 어긋난 행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연이은 은행권 '금융사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 뿌리째 흔들려- 거액 횡령부터 미공개정보 이용까지…지배구조법 속도- 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증권업무대행 부서 직원들, 불공정거래로 66억 이득- 미공개 정보 전달해 지인들도 61억 매매 이득 봐- 초기 검사서 1명 혐의만 확정, 다른 직원들도 확인- 추가 검사와 증권대행부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개선- 경남은행서 562억 PF 대출 횡령…도덕적 해이 심각- 15년간 PF 대출 담당…상환자금 가족 계좌 이체 등-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위조해 자금 빼돌려-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등 미흡- "전형적 수법의 횡령, 내부통제 작동 안 했을 수도"- 금융사 직원 횡령 반복…올해만 역대급 600억 육박- 금융사 직원 횡령 반복…올해만 역대급 600억 육박- 시중·특수·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 사고- 5년간 시중은행 사고액 871억 중 고작 7%만 회수- 5년간 우리은행 횡령 사고 금액 732억 원대로 최고- 하나은행 57억 원·기업은행 29억 원·농협은행 28억 원 횡령(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기사 제목: 韓 vs 臺, 애플 첫 'OLED 아이패드' 기판 두고 격돌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01596?sid=105

코리아써키트·비에이치 외 대만 컴펙도 참여해 기판 테스트 진행애플의 첫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아이패드를 두고 한국·대만 기판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주요 패널 공급처 중 하나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초 국내 협력사 두 곳에서 기판을 조달받으려 했으나, 올해 중순부터 대만 업체 한 곳도 벤더 진입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및 대만 주요 기판업체들은 애플이 내년 출시할 예정인 OLED 아이패드용 기판 공급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10월 공개된 M2칩 기반 아이패드 프로 (사진=애플)애플은 아이패드에 LCD 패널을 적용해왔으나, 내년 출시할 신규 모델에는 처음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모델 2종(11인치, 13인치)에 OLED가 적용된다. OLED는 LCD 대비 응답 속도가 빠르고 명암비가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OLED 패널 제조에는 PCB(인쇄회로기판)이 활용된다. PCB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회로 부품이다.애플의 주요 디스플레이 공급처인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협력사를 통해 OLED용 PCB를 조달받으려 하고 있다. 애플 OLED 아이패드향으로는 관련 PCB의 선도개발을 맡았던 코리아써키트의 진입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또 다른 국내 기판업체 비에이치도 2차 벤더 진입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애플은 올해 중순부터 대만 COMPEQ(컴펙)과도 제품 테스트를 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OMPEQ 역시 애플의 협력사 중 한 곳으로, 그간 아이폰 시리즈에 메인 기판, 배터리 모듈 패키지 등을 공급해왔다.이에 국내 및 대만 기판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외에도 삼성과 애플 간의 관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컴펙은 기존 삼성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내에 속하지 않는다. 컴펙이 애플의 OLED 아이패드 벤더로 진입하는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해외 업체인 컴펙을 자사 밸류체인에 새로 등록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반면 애플은 디스플레이 공급망을 삼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보여 왔다.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대만 컴펙을 활용하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업계는 실제 벤더 선정이 이르면 내달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 일정은 내년 상반기다. 이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적기에 공급하려면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에는 관련 부품 테스트도 모두 끝마쳐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라는 의미도 있고, 해당 기판이 고부가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협력사들 또한 관심도가 높다"며 "현재 애플과 디스플레이 업체 측에서 각 기판의 수율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